

## 투쟁하는 보람, 혁명하는 보람

2021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삼지연시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이날 포태동에도 들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몸소 부감터에 오르시여 삼지연시 포태동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바라보시면서 멋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이전에 있던 살림집들은 다 허물었는가고 물으시였다.

100% 허물고 다시 지어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에 주민들을 다 입사시키였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삼지연시 주민들이 이번에 천지개벽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좋아한다는데 그것이 바로 삼지연시꾸리기에 대한 총평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면 합격이고 싫어하면 불합격이라고, 세상을 이렇게 천지개벽하는것이 혁명이라고 하시면서 낮과 밤을 이어가며 투쟁하는 보람, 혁명하는 보람이 바로 이런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제일 큰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을 숭엄히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그이의 발걸음에 언제나 자신들의 보폭을 따라세우면서 인민의 참된 총복으로 살며 일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